

2025 필리핀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6
나. 필리핀 인프라 혁신의 중심, BBM[Build Better More] 추진	7
다. 한-필리핀 FTA 발효 전망에 따른 발판 마련	8
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리핀 경제개발계획(PDP) 전략	9
마. 한-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모멘텀 강화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2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가. 정치 환경	12
나. 경제 환경	13
다. 산업 환경	17
라. 정책·규제 환경	20
2. 시장 분석	2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3
나. 교역	24
다. 투자	2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0
가. 투자 진출	30
다. 협력 유망 분야	31
III. 진출전략	35
1. PEST 분석	35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6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7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4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6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8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0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내수 소비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2024년 필리핀은 6.0% 경제성장 기대

• (경제) 신흥국 평균(4.2%) 및 주요 경제권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 전망

- 견조한 내수 소비와 인프라 투자 지속, 낮은 실업률이 성장을 뒷받침하여 '24년 약 6%에 이어 '25년 약 6.1%로 성장세 지속 예상
-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성, 외부 경제 요인은 경기 하방 리스크

* 자료: (WB) 경제 전망 보고서('24.10월)

〈주요 기관별 필리핀 경제성장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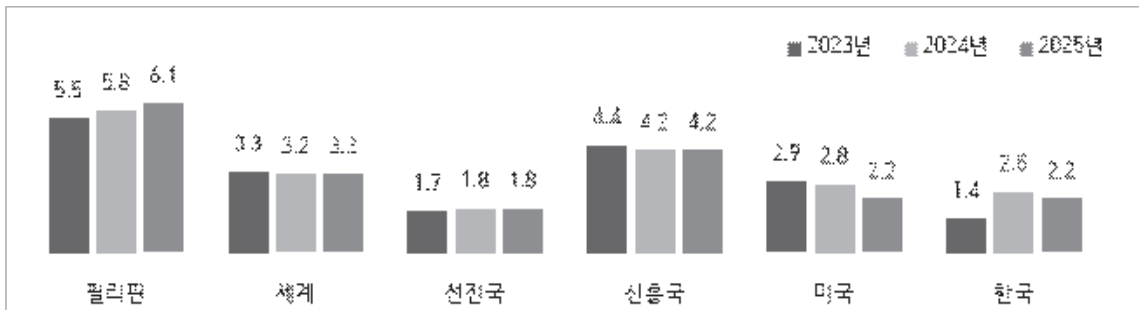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IMF	7.6	5.5	5.8	6.1
WB	7.6	5.5	6.0	6.1
ADB	7.6	5.5	6.0	6.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4.10월), (WB) 경제 전망 보고서('24.10월), (ADB) Asian Economic Outlook('24.9월)

〈주요 경제권별 경제성장률〉

(단위: %)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4.10월)

- **(소비) 젊은 인구 증가 및 물가 안정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 예상**
 - (젊은 인구 증가) 전체 평균 연령 25.4세의 소비력 높은 젊은 인구 및 연평균 1.5%가량의 인구 증가에 따라 가계 소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안정) ADB에 따르면 '25년 물가상승률이 3.4%(△0.4%)로 예상되며, '24년 하반기 환율 완화와 맞물려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투자) 낙관적 경제 전망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25년 투자는 '24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국내 투자) 경제성장 지속 전망과 견조한 내수 소비, 정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지속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 CREATE MORE법 등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로 '25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지출) 필리핀 정부 '24년 예산안 5.768조 페소(1,015억 달러) 대비 10.1% 상승한 '25년 예산안 6.352조 페소(1,118억 달러) 발표**
 - 인프라 개발, 교육 투자, 디지털 혁신, 식량 안보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발전 계획(PDP) 2023~2028에 따라 정부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교역) 필리핀 교역량은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자제품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년 상반기 4.5% 증가
 - '25년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필리핀 진출기업 수출 증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경제협력 강화로 교역량 증가 예상
 - * 필리핀 교역량은 주요 필리핀 진출 외국 기업(일본, 미국 등)의 전자제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의존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104.9	106.5	108.7	110.0	113.9	113.9	114.8	115.8	116.7
명목GDP	십억 달러	328.48	346.84	376.82	361.75	394.09	404.28	436.62	471.52	509.38
1인당 명목GDP	달러	3,150	3,280	3,510	3,330	3,580	3,620	3,870	4,130	4,410
실질성장률	%	6.7	6.2	5.9	-9.5	5.7	7.6	5.5	6.0	6.1
실업률	%	5.7	5.3	5.1	10.4	7.8	5.4	4.4	5.1	5.2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2.2	3.3	2.4	3.9	5.8	6.0	3.8	3.4
재정수지(GDP대비)	%	-0.7	-2.6	-0.8	3.2	-1.8	-7.3	-6.1	-5.4	-4.9
총수출	백만 달러	63,233	67,487	70,334	63,879	74,569	78,930	72,923	N/A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540	2,542	3,208	2,536	2,574	3,520	3,126	N/A	N/A
총수입	백만 달러	92,841	108,928	107,375	85,687	117,308	137,977	126,106	N/A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073	11,162	8,229	6,682	9,323	12,316	8,477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9,608	-41,440	-37,041	-21,808	-42,739	-59,047	-53,183	N/A	N/A
경상수지	십억 달러	-2.14	-8.88	-3.05	11.58	-6.92	-18.3	-11.2	-1.0	0.4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0.51	51.63	52.1	48.6	49.27	55.73	55.38*	56.96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02.6	99.5	86.7	68.2	119	92	89	N/A	N/A
OFW 해외송금액	억 달러	313	322	335	332	349	361	372	N/A	N/A

* OFW(Overseas Filipino Worker) : 해외 노동자가 많은 특성으로 필리핀 경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통계청(PSA), ADB, WB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 (디지털 인프라) 필리핀 정부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 마르코스 대통령, 모든 정부·기관·지자체 대상으로 **쑤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및 통합 전자정부 플랫폼(eGovPH) 구축 지시('23.4)**
 - 필리핀 정부 전자정부 법안 시행('24.2) 및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2028('24.8) 등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정보통신부(DICT)는 ①전자정부 플랫폼, ②중앙정부 디지털화, ③지방정부 디지털화, ④정부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⑤정보시스템 전략계획 등 5대 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 중

〈필리핀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 5대 추진 방향〉

분야	주요 방향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확대	▶모바일·웹 통해 주민등록, 세금 신고, 문서 발급 등 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하기 위한 통합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기술 기반의 투명성 향상	▶공공 데이터와 정부 예산, 정책 결정 등 공개로 행정 절차 투명성 증대
디지털 역량 강화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실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력한 보안 정책과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유출 및 해킹 방지

□ (민간 부문)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소셜 커머스의 부상

- (높은 잠재력) '24년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4.1억 달러로 '2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이 예상되며, 2028년 약 39.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료: Globaldata

-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소득 증가 및 중산층의 성장, △스마트폰 사용 확산, △대체 결제 수단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대가 꼽힘

* Gcash, Maya, PayPal 등

- Shopee, Lazada와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Tiktok,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쇼핑 기능 확대에 따른 소셜 커머스가 부상하고 있음

나. 필리핀 인프라 혁신의 중심, BBM[Build Better More] 추진

□ 필리핀, 3대 도시(마닐라, 세부, 다바오) 중심 인프라 개발에 집중

- '24년 국가 지출 계획에 20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예산 책정

- 총 1,5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FP) 19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15개만 종료되어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임

- * BBM 프로그램은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건설 119개, 디지털 연결망 구축 5개, 수자원 관리 44개, 건강 6개, 에너지 1개, 농업 14개, 기타 5개로 구성

- '25년 인플레이션 안정화, 내수 경제 성장에 따라 지방 도시의 인프라 개발과 도시화에 더 많은 투자 개발이 예상됨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의 종류】

- ① **단지형 개발사업** : 대도시 내 단지 개발 사업

- * 뉴 클락시티, 마닐라 간척사업, 마닐라 신공항, 파사이시 간척사업 등

- ② **대형 도시개발사업** :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사업

- * 세부, 카우아얀, 다바오, 일로일로시 등 스마트 프로젝트

- ③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 * DTI Industry 4.0, DOA Smart Agriculture, DOE Smart Grid 프로젝트 등

- **인프라 및 교통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

-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2040년까지 석탄 의존도(35%(20년) → 11%)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까지 확대 계획

-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어, ODA, PPP 등을 활용한 민간 발전 사업자와의 협력 확대 전망

〈민간 분야 주요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단위: MV, %)

구분	정부 승인 사업 (Committed)		추진 준비 사업	
	용량	비중	용량	비중
분야				
석탄	3,685.4	35.93	1,520	2.97
오일	41.75	0.41	335	0.66
천연가스	3,500	34.13	6,580.00	12.86
재생에너지	3,028.90	29.53	42,723.53	83.51
합계	10,256.05	100	51,158.73	100

* 자료: DOE(Department of Energy)

다. 한-필리핀 FTA 발효 전망에 따른 발판 마련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 가격경쟁력 강화 전망

- '24년 9월, 필리핀 상원은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국회에 비준안 발의 중, 해당 협정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을 마련

- 한-필리핀 FTA 발효 시 국산 화물차 및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됨과 동시에 친환경차는 5년간 철폐될 예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문구류, 가공식품 부문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필리핀 수입 관세율

- 승용차 : (기본 관세율) 30%, (日) 20%, (中) 5%, (한국) 5%→0%
- 화물차 : (기본 관세율) 30%, (日) 0%, (中) 5%, (한국) 5%→0%
- 자동차 부품 : (기본 관세율) 3~30%, (日) 0%, (中) 3~5%, (한국) 3~30%→0%
- 친환경차 : (기본 관세율) 30%, (日) 20%, (中) 5%, (한국) 5%→0%

- 국산 인삼, 고추, 배, 고등어 등의 관세가 15년 내에 철폐됨으로써 파프리카, 딸기 등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진출 기회 증가. 바나나의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통한 수입 급증 통제 및 수입량 초과 시 관세 부과 조치 10년간 적용 예정

- 경제기술협력 강화와 동시에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데 초점을 둠. FTA 통합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양국 간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FTA를 통한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 자원 공급망 확장 기회 창출. 전기차 및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 가능성 有, 필리핀 내 국내 차량의 가격 경쟁력 향상될 전망

* 필리핀은 니켈(세계 2위), 코발트(세계 4위) 생산국

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리핀 경제개발계획(PDP) 전략

□ 필리핀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 필리핀, '25년 중상소득국가(1인당 소득 4,256달러) 전환 목표 제시
 - 마르코스 대통령, PDP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 참여, 국내외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마련 강조
 - 다소 정체된 필리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개발, 재난 복원, 디지털 확대를 통해 '28년까지 6.5~8.0%의 성장을 목표로 함

〈필리핀개발계획(PDP 2023~2028) 주요 목표〉

목표	주요 내용
경제성장 촉진	▶ 투자와 소비 활성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연평균 6~8% 성장 달성
빈곤 감소	▶ 농촌 개발, 일자리 창출, 사회 보호 강화를 통해 빈곤율 18% → 9% 달성
인프라 개선	▶ BBM(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 등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	▶ 전자정부 강화, 전국적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비율 대폭 늘려, 기후변화 대응

- '23~'28년 6개년 동안 빈곤 감소와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산업·농업 현대화, 사회 보호, 국가 통합,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
 - 필리핀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 제공 목적

〈필리핀개발계획(PDP 2023~2028) 주요 전략〉

전략	주요 내용
산업·농업 현대화	▶ 산업 기반 강화, 농업 현대화, 농촌 경제 활성화 추진
사회적 보호 강화	▶ 사회적 안전망 확충, 취약 계층의 건강 및 교육 서비스 개선
국가 통합	▶ 범국가 통합정책 추진,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국제 협력 강화	▶ 지역경제 및 동맹국 간 협력 강화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필리핀 2040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경제 핵심 지수 목표 제시

〈필리핀 경제 핵심 지수〉

목표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빈곤율
2023년	USD4,130	6.0~7.0%	5.3~6.4%	2.5~4.5%	16.0~16.4%
2028년	USD6,044	6.5~8.0%	4.0~5.0%	2.0~4.0%	8.8~9.0%

마. 한-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모멘텀 강화

□ 한-필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분야 확대

-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양국 간의 안보, 경제,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합의**
 - 정상회담 중 공동 선언문 채택, 75년 외교 관계 수준 향상
 -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수립은 한-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급

□ 정상회담 후 후속 조치

-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정보 공유, 합동 수색 및 구조 작업 포함**
 - 2023년 9월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해 무역 및 투자 증진 합의
-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양국 간의 안보, 경제,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합의**
 - 한국, 약 20억 달러의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라구나 레이크쇼어 도로망 및 PGN 다리 건설 지원 MOU 체결
 -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정부, 바타안 원자력 발전소 안전 운영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MOU 체결

〈한-필 비즈니스 포럼 계기 체결된 MOU 목록〉

분야	체결 주체 (한-필)	MOU 주요 내용
원전·에너지	삼성물산 - 마닐라전력(Meralco)	원자력 기술·설계·규제 등 주체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 - 마닐라전력(Meralco)	필리핀 마닐라전력(Meralco)과 복합화력/가스 터빈 등 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 - 퀘존파워	서부 Quezon 지역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 협력
건설·인프라	삼성물산 - 산 미구엘	필리핀 내 인프라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주)RMS물류플랫폼 - BCDA	필리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즈니스 협력 및 기술 제공
	(주)RMS물류플랫폼 - 바코르 파 사우스 글로벌 코퍼레이션	필리핀 바코르 파 사우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및 기술 제공
	도화엔지니어링 - 자르몰	필리핀 전력 및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자 Pool 제공을 통한 현지 사업 개발 협력
항공정비·방산	대한항공 - 세부에어	항공기 및 엔진 정비기술 협력 등 MRO 노하우 공유
	아비스 - 비소스테이닉 서비스 에어 서포트	필리핀 군 현대화 협력, 항공 장비 수출에 관한 업무협력

분야	체결 주체 (한-필)	MOU 주요 내용
농업	한국농기계협동조합 - 농업부 카바나투안 市	농기계 공동 개발·보급 촉진, 관련 조정 사업 협력 등
유통	(주)위니웰코스메틱 - Lipstick Please Marketing Corp	오로라네 브랜드와 필리핀 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협력 추진
	(주)동서식품 - 버건디	필리핀 커피 시장 협력 및 판매 대리 계약 및 홍보 협력 추진
협력 플랫폼	한국경제인협회 - 필리핀상공회의소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 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 다자 경험 강화

• 인적 교류 확대 및 필리핀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고용 허가제 개편 방안 논의

- 지난해, 약 14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최대 외국 관광객 집단 형성, 필리핀에서 약 9만 7천 명 근무 중
- 서울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약 10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고용 시작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가. 정치 환경

□ 필리핀의 다당제 정치 체제

- '24년 5월, 현 여당 '필리핀 연방당'을 필두로 '새로운 필리핀을 위한 정치 연합'(Alyansa para sa Bagong Pilipinas)이 결성
 - 필리핀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한 상원의원 24명과 임기 3년으로 최대 3연임이 가능한 하원의원 318명으로 구성
 - 3년 주기의 중간선거마다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전원이 교체되며, 정당의 이념보다 소속된 인물 중심으로 투표
 - 필리핀 정치인들은 예산을 통제하는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자신의 선거구에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승리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따라서 필리핀 정치에서 정당 전향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
 - 의석 확보, 정책 목표 달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현재 4개의 연합 정당이 형성.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 및 정치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가문 중심의 세습 정치

- 前 러닝메이트 봉봉 마르코스와 사라 두테르테 두 가문 간 동맹의 균열
 - '22년 마르코스와 두테르테는 선거 연합 '유나이티팀(Uniteam Alliance)'을 결성하며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
 - '24년 1월,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정치 집회에서 마르코스 現 대통령을 마약 중독자라고 비난.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前 대통령이 펜타닐을 복용하여 판단력이 저하되었다고 반박하며 두 가문의 파벌 갈등 고조
 -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개헌 목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촉진(마르코스 주장) 및 연임 제한 폐지(두테르테 주장)로 양분되어 갈등이 악화됨
 - 마르코스의 개헌 성사를 저지하기 위해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2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인 필리핀의 두 번째로 큰 섬, 민다나오의 독립을 주장

- '24년 6월, 두테르테 부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직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두 가문의 정치적 긴장이 악화됨
-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가문은 각각 남부와 북부 지역에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두 가문 긴 파벌은 '25년 중간선거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필리핀 외교정책

• 前 정권의 친중 성향에서 벗어나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위한 친미 외교 전환

- 두테르테 前 대통령 집권 당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온건한 태도 유지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합의를 통해 필리핀과 인프라, 공업 공단, 전기 통신, 에너지 분야에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약속
- '22년 마르코스 정권이 집권하며, 남중국해 문제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친미 외교정책을 본격 추진
-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 주장을 근거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과 중국 해양경찰선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물대포 공격 및 선박 충돌이 '24년 8월에만 다섯 차례 발생
- 필리핀은 미·필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고, 미·일·필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을 견제 중
- '23년 기준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입 대상국인 만큼,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나. 경제 환경

□ (경제구조) 내수 소비 중심 경제구조

- 국민 총지출 중 75%가 가계 소비에 치중될 정도로 국민 총지출 중 내수 소비 비중이 높음
- 약한 제조업 기반과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교역에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발생

〈2024년 상반기 필리핀 국민경제 총지출 (실질 GDP 기준)〉

(단위: 억 달러)

총지출(Y)	가계소비(C)	기업투자(I)	정부지출(G)	무역수지(X-E)
2,204.74	1,659.31	552.37	323.75	-316.55
100%	75.26%	25.05%	14.68%	-14.36%

주: 반올림, 근사치 사용, 추정치 차이 및 기타 경제 활동 제외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23년 기준 GDP의 11%(387억 달러)에 해당하는 OFW 해외 송금액 등 외화 순유입이 가계 소비를 부양

* OFW(Oversea Worker) : 필리핀 국민이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로 계약을 통해 일하며 본국에 송금을 보내는 해외 노동자
 * 외화 순유입액은 국민총소득(GNI) 구성요소로 국민총생산(GDP) 외 순유입액.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이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자국에 달러로 송금하며 대부분이 가계 소비로 쓰임

〈필리핀 해외 근로자 해외 송금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만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E	2024E
OFW 해외 송금액	33,467	33,194	34,884	36,136	37,210	12,010
증감률	3.9	-0.8	5.1	5.7	2.7	2.8
OFW 해외 노동자 수	218	177	183	196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내수시장) 젊은 인구 구성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

- (인구 구성) 소비력 높은 평균 연령 25.4세의 1억 명 이상 거대 인구, 연평균 1.5%가량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내수 시장

〈필리핀 연도별 인구 수 (2020~2024년)〉

단위	2020	2021	2022	2023E	2024E
명(인구수)	112,190,997	113,800,328	115,559,009	117,337,368	119,106,224

자료: 월드미터

□ (투자) 낙관적 경제 전망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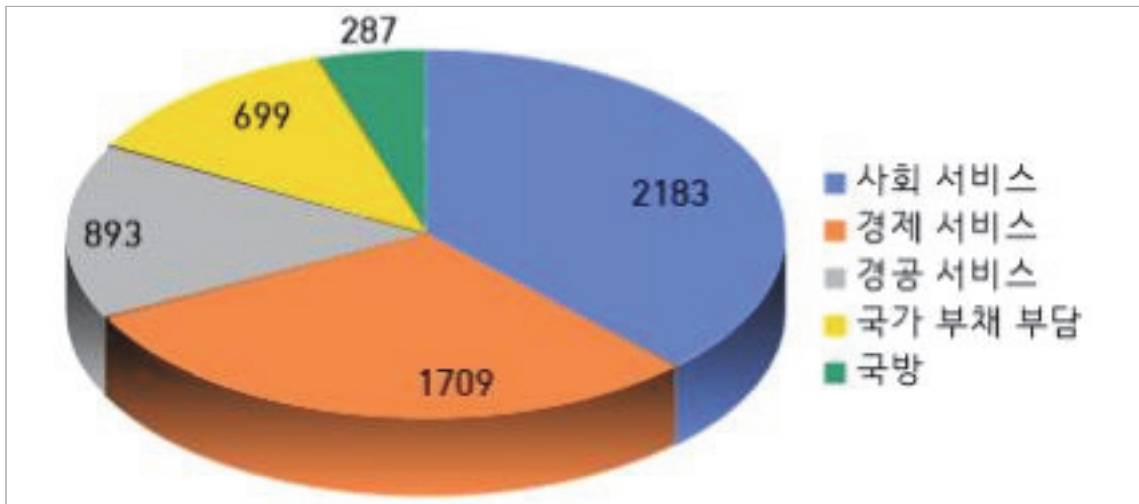
- (국내 투자) 경제성장 지속 전망과 견조한 내수 소비, 정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확대 중
- (외국인 직접투자) CREATE MORE법 등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정책으로 외국인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중

□ (정부 지출)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

- '24년 GDP의 21.7%에 해당하는 5.768조 페소(1,015억 달러) 규모의 예산 계획을 기반으로 정부 지출 확대
- 교육·인프라·보건·지방자치 및 중앙정부, 국방 등을 우선순위로 예산 지출

〈2024년 필리핀 분야별 예산 배정〉

(단위: 10억 페소)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2024년 필리핀 주요 10개 부문 및 관련 부처 예산 배정〉

순차	분야	관련 부처	2024년 예산 (억 페소)	비중 (%)
1	교육	필리핀 교육부(DepEd), SUCs, CHED, TESDA 등	9,247	16.0
2	인프라	공공사업도로부(DPWH)	8,222	14.3
3	보건	보건부(DOH), Philhealth	3,061	5.3
4	지방자치 및 중앙정부	내무지방자치부(DILG)	2,595	4.5
5	국방	국방부(DND)	2,322	4.0
6	교통	교통부(DOTr)	2,143	3.7
7	사회복지 개발	사회복지개발부(DSWD)	2,099	3.6
8	농업	농업부(DA), 농업개혁부(DAR)	1,814	6.1
9	법무	법무부(DOJ)	578	1.0
10	고용	노동고용부(DOLE), 이주노동자부(DMW)	405	0.7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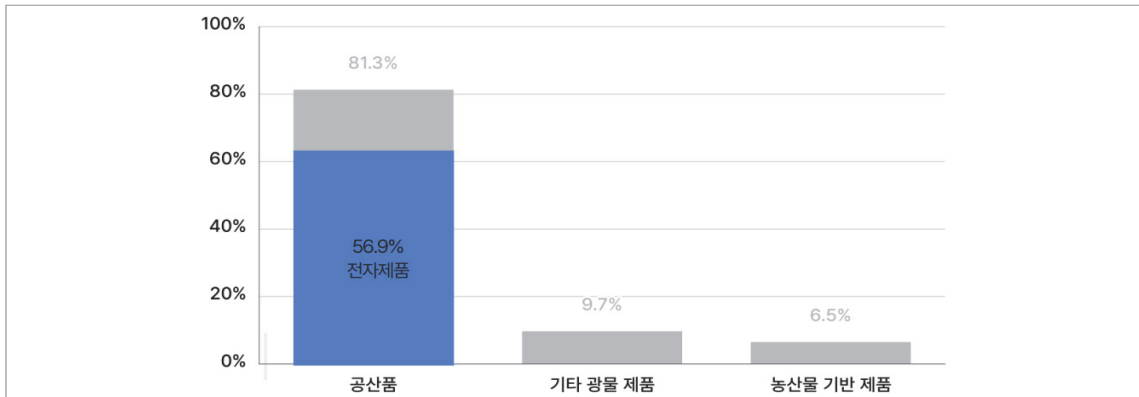
□ (교역) 수입 원부자재를 조립하여 공산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

• (수출) 외국인 투자 기업 주도의 공산품, 특히 전자제품 의존도가 높은 구조

- '23년 상품 유형별 수출량은 공산품(598억 달러, 81.3%), 기타 광물 제품(71.4억 달러, 9.7%), 농산물 기반 제품(47.9억 달러, 6.5%) 순

* 전체 공산품 중 전자제품 수출이 56.9%(419.1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

〈2023년 상품 유형별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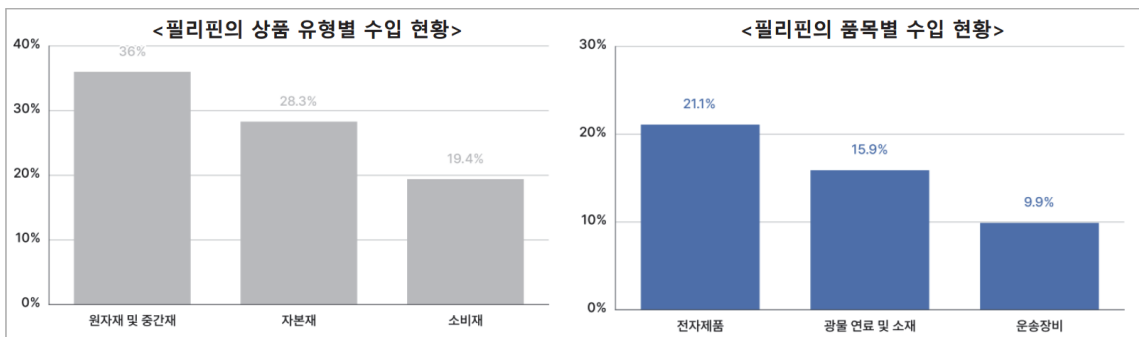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수입) 공산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및 원부자재, 연료 수입이 높은 구조

- '23년 상품 유형별 수입량은 원자재 및 중간재(454.6억 달러, 36.0%), 자본재(357.2억 달러, 28.3%), 소비재(244.4억 달러, 19.4%) 순

- 품목별 수입량은 전자제품(266.4억 달러, 21.1%), 광물 연료 및 관련 소재(201.1억 달러, 15.9%), 운송장비(124.5억 달러, 9.9%) 순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다. 산업 환경

〈필리핀 산업별 구성비 (2020~2024년)〉

(단위: 백만 페소)

Indicators	2020	2021	2022	2023	2024E
1차 산업 (농·산림·어업)	1,780,391	1,775,210	1,783,499	1,804,907	446,303
구성비	10.2%	9.6%	8.9%	8.6%	8.6%
2차 산업 (제조·광산·건설업)	5,115,316	5,551,622	5,914,703	6,126,102	1,543,974
구성비	29.2%	29.9%	29.7%	29.1%	29.8%
3차 산업 (서비스업)	10,642,137	11,213,252	12,245,428	13,120,749	3,199,380
구성비	60.7%	60.5%	61.4%	62.3%	61.6%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제조업) '24년 상반기 반도체, 전자제품, 식음료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라 지속 성장 중

- '24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 반도체 수출은 31.9% 증가하여 2.65억 달러 기록, 글로벌 시장 내 회복세 보일 전망**
 - 필리핀은 중간재 후공정 사업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웨이퍼 제조와 R&D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확장할 계획
 - 미국과의 협력 강화, CHIPS Act 등 국제적 지원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리핀 반도체 산업의 역할이 커질 전망
 - * CHIPS Act : 미국이 2022년에 제정한 법으로,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약 52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4년 상반기 기준, 전자제품 수출 26.8% 성장, 전년 동기 대비 2.7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증가**
 - 중간재 수입 후 완제품으로 재조립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는 성장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식음료 가공산업, 정부 정책에 힘입어 '24년 지속 성장 전망**
 - RAPID Growth 프로젝트를 비롯한 농업 가공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식음료 부문은 2024년 상반기 9.5% 성장,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
 -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과 농업 기반 가공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과 기후 스마트 기술 도입을 촉진, 이는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

- 필리핀 내 풍부한 농업 자원 및 정부發 농업 가공산업 지원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지속 성장 기대

* RAPID Growth : 2017년에 발의된 필리핀 정부의 농업 가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및 농업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억 페소(약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스마트 기술과 가치 사슬 기반 지원을 통해 농업 가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

□ (건설/인프라) 필리핀 정부, BBM 프로젝트 통해 주요 인프라 확장 및 산업 발전 추진

- **루존 경제회랑 80% 이상 완료, '25년 초 본격 가동 예정**

- '24년 상반기 기준 루존 남북철도 주요 역사 건설 60% 완료 및 '25년 첫 열차 운행 예정, 루존 경제회랑 일부 사업 지속 확장 중

- 수빅 조선소, 남북철도 등 핵심 프로젝트 진행 중, '25년 완공 목표

□ (디지털 경제) 필리핀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전망

- **필리핀 디지털 경제, '24~'25년 연평균 15% 성장 전망**

- '30년까지 최대 1,013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잠재력 예상, ADB 및 IMF, '24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6% 이상으로 전망, 디지털 경제가 핵심 동력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확산으로 패션, 가전, 식음료 분야에서 급성장 중, Shopee, Lazada 등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며 소비자 신뢰 증가

□ (소매/유통) 디지털 혁신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소매 판매량 및 유통업 성장 전망

- **'24년 소매 판매, 전자상거래 지속 확산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성장 예상, 유통 채널 확장 및 옴니채널 전략 활성화에 따른 '25년 소매업 부문 성장 유지 전망**

- '24년 상반기 소매업 매출은 소비자 지출 증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통해 전년 대비 증가 전망, 옴니채널 전략을 통한 소비자 구매력 상승 및 고객 충성도 제고에 따른 소매업체 매출 증대 예상

- 전자상거래 부문은 '25년 소매 유통에서 전체 소매 판매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확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소매업 매출액 증감률 : ('23년) △11.09%, ('24년, 추정치) △12.5%, ('25년, 전망치) +13.0%

- BOT/PPP 법 개정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외국 소매업체들의 진출 활성화 기대,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 유통업체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유통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기준 하향 및 물류 개선에 따라 대형 소매업체 주도 예상**
 - 소매 무역 자유화법(RTLA) 발의로 외국 기업 진출 장벽 완화,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외국 소매업체 시장 진입 편의성 제고 전망
 - 물류 및 공급망 개선으로 빠른 배송과 경쟁력 강화 예상, SM Investments Corp., Puregold Price Club Inc., Robinsons Retail Holdings 등 주요 대형 소매업체들이 2025년에도 주도적 역할 예상
 - * 최소자본금 이하 투자 시에는 외국인의 지분 최대 40%로 제한

□ **(여행/관광) 스마트 관광 산업 추진 및 Love the Philippines 캠페인으로 '24년 관광산업 회복 및 '25년 지속 가능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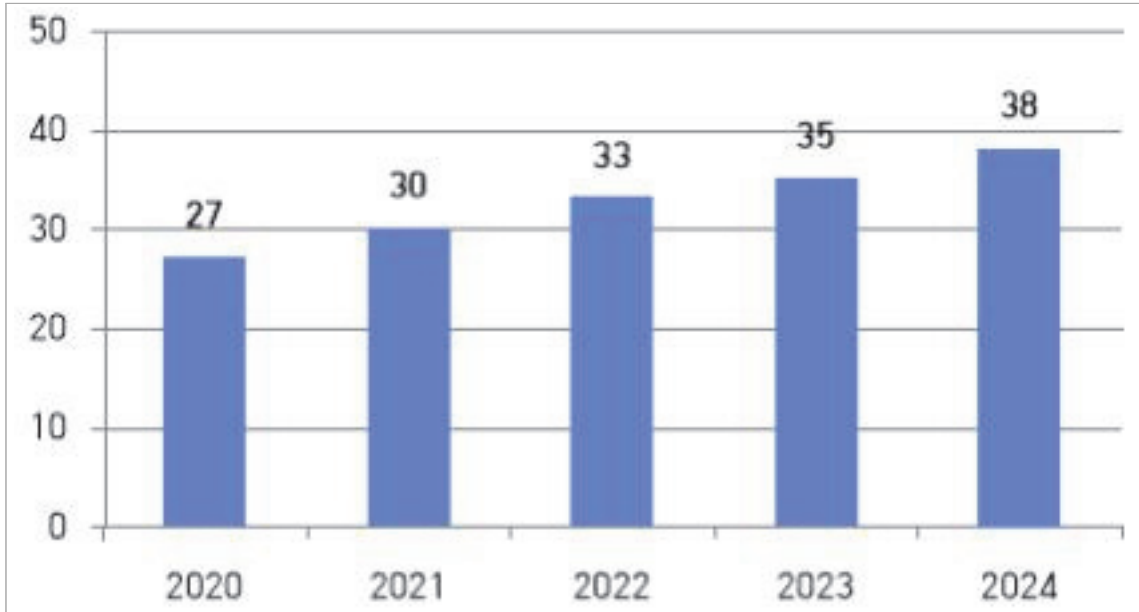
- **필리핀 관광부 Love the Philippines 캠페인 통한 '24년 관광 산업 회복, 지속 가능 관광 개발 추구**
 - 필리핀 관광부(DOT) Love the Philippines 캠페인 발표,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 산업 회복 중, DOT 통계자료에 따르면 '24년 약 8.21백만 명의 국제 관광객 유치 예상
 - '24년 기준 필리핀 관광산업은 필리핀 GDP의 약 8.6%(약 406억 달러)를 차지하며, 약 9.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 지향**
 - 필리핀 정부, 관광 인프라 확장 및 AI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관광객 경험을 향상 지향, 지속 가능 관광 정책 강화를 통한 주요 관광지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지향 정책 추구
 - '25년 국제 관광객 수가 9.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크루즈 개체 수 증가에 따른 허브 확장을 통한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가속화 전망

□ **(BPO 산업) IT BPO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송금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 **IT-BPO 산업은 필리핀 서비스업 GDP의 약 7%(약 378억 달러)를 차지하며, '24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예상되며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BPO 산업의 서비스 확장 견인**
 - '24년 기준 약 150만 명의 고용 창출 예상
-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이 IT-BPO 산업에 대한 영향 확대**
 - 필리핀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AI, 빅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서 경쟁력 강화

〈연간 IT-BPO 산업 매출 성장 추이〉

(단위: US\$ 10억)



자료: 필리핀 IT-BPO 협회(IBPAP)

라. 정책·규제 환경

□ (세금, 세제개혁) 개정된 기업 세금 정책

• 납세 편의법(Republic Act No 11976(Ease of Paying Taxes Act)) 제정

- '24년 1월 5일에 제정된 법으로, 필리핀 내 납세자의 세무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 편의성을 증대
-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영세기업에 대한 이자 및 페널티 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세무 규정 강화 목적

• 세무 신고 및 절차 간소화

- 납세자는 관할 RDO에 구매받지 않고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전산 또는 수기로 어디든 세무 신고 가능, 잘못된 장소에서 납부하더라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음
 - * RDO(Revenue District Office): 필리핀 국세청의 지역 세무서로서 세금 신고 및 납부, 감사 등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원천세 공제 시점이 기존의 납부 기한 기준에서 비용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유도

-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

- 비영리 교육기관 및 병원이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총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순소득에 대한 소득세 10% 적용
- 타협제도 50% 감면되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 기대 가능

- **부가가치세(VAT) 환급 및 리스크 기반 접근 도입**

- 부가세 환급 신청 시 리스크 수준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검토 과정이 변경, 리스크 레벨에 따라 검토 범위가 차별화
- Medium 및 High 단계의 리스크 기업의 경우, 주요 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며, 이는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청구서 및 등록 절차 개정**

- 모든 거래에 대해 청구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VAT 면제 및 영세율 적용 거래는 해당 사항 의무 명시
- 기존의 Official Receipt 및 Billing Statement는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청구서로 전환 필요

□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장려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투자 기회 제공**

- 필리핀은 134,814MW의 미개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 풍력(85,693MW), 태양광(28,914MW), 수력(18,903MW), 지열(1,063MW)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35%, '4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 목표, 또한 '40년 1,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은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현지 기업 대비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전망
- 청정에너지 시나리오(Clean Energy Scenario, CES)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설정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 도입 중

-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NREP) 2020~2040**

- '21년 2월,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NREP)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을 '30년까지 필리핀 총발전량의 36.96%, '40년까지 55.8%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REP 2020~2040은 '08년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Republic Act No. 9513)에 따라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를 상세히 설명, 업데이트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및 공중 보건 개선**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저탄소 및 탄소 제로 에너지로 전환,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비용절감을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전망
 - 주요 정책 권고 사항으로는 송전 및 전력망 투자, 에너지 효율 우선순위, 공정한 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쟁력 및 외국 투자 유치 촉진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이전에 외국인 지분이 최대 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지분 최대 100% 허용**

〈필리핀 에너지 플랜(PEP) 2020~2040〉

필리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각화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PEP 2018~2040에서 업데이트된 이 계획은 청정에너지 미래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필리핀 에너지 플랜(PEP) 2020~2040은 '40년까지 필리핀 에너지 산업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목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강력한 재생에너지(RE, Renewable Energy)와 에너지 효율 및 보존(ECC,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제도화 프로그램,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 중단, 대규모 지열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40년까지 발전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 35%까지 확대, '22년부터 LNG 수입, 바이오 연료 혼합(2%의 바이오디젤 및 10%의 바이오에탄올) '40년까지 유지, '40년까지 도로 운송용 전기차 보급(자전거, 자동차, 지프니) 등도 목표로 하고 있음

* '23년 기준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율 : 석탄(62.5%), 재생에너지(22.27%), 천연가스(14.13%), 오일(1.1%) 순이며, 재생에너지 부문만 따로 살펴보면 지열(9.09%), 수력(8.72%), 태양광(2.16%), 바이오매스(1.19%), 풍력(1.11%) 순임

* '23년 기준 지역별 전력 생산 현황 : 1) 루손(Luzon) 83,290,439MWh(70.58%), 2) 비사야스(Visayas) 18,162,785MWh(15.39%), 3) 민다나오(Mindanao) 16,550,685MWh(14.03%)

*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ASIA Business Law Journal, Earth Journalism Network, KOTRA 해외시장뉴스

□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 균형된 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 집중

- **행정명령(EO) 발의로 디지털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
 -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허가, 고도 허가 및 지역 사회 허가 요건 간소화
 - Converge ICT Solutions, Inc를 비롯한 통신 관련 기업들, '통신 인프라 간소화' 행정명령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FP)로 디지털 연결성 강화에 집중**
 - GDP의 5% 이상 인프라 투자 예정, 9조 페소 규모의 194개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FP)로 민관 파트너십(PPP)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
 -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로 필리핀 국민에게 기회 확대, 디지털 산업 활성화, 생산성 향상, 디지털 투자 유치
 - 디지털 인프라 개발로 국가 전체에 포용적 성장 실현에 힘쓰며 디지털 소외 방지

2. 시장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 특성

- (젊고 증가하는 인구) 약 1.2억 명의 인구와 그중 약 60%가 30세 이하로 매우 젊은 인구 구조가 특징. 이는 소비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며, 특히 디지털 산업, 소비재, 교육, 건강 분야에서 수요 확대 예상
- (높은 영어 사용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비즈니스 환경에서 언어 장벽이 비교적 낮아 한국 기업들의 현지 파트너와 소통 및 비즈니스 확장이 용이
- (IT 및 BPO 산업 강세) 콜센터, IT 서비스 아웃소싱 등 세계적 경쟁력의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IT 서비스를 제공, 특히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 전 세계 주요국 대비 24년 6%, 25년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 및 IT, 건설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소비재,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기회 확대 전망
-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쇼핑, e-커머스, 모바일 결제 선호도 증가세 뚜렷

□ 전략적 가치

- (아세안 진출 교두보) 지리적으로 아세안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필리핀을 통해 주변 국가로의 확장이 용이
- (산업 협력 기회) 필리핀 정부는 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 ICT, 의료기술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필리핀 내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한류) 필리핀 내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음.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에 긍정적 영향
- (한-필 FTA) 내년 한-필 FTA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 대상 관세 혜택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필리핀 내 시장 경쟁력 증가 전망

나. 교역

□ 수출입 동향

〈최근 3개년 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2년		'23년		'24년(1~6월)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증감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 세계	78,930	137,977	72,923	126,106	36,162	61,414	3.5	-2.4
1	중국	10,966	28,188	10,648	29,384	4,584	15,589	-17.9	10.6
2	인도네시아	726	13,189	748	11,514	457	4,909	31.4	-17.7
3	일본	11,094	12,347	10,425	10,261	4,979	4,861	-4.0	-6.5
4	대한민국	3,127	12,316	3,479	8,477	1,851	4,568	16.7	6.3
5	미국	12,461	8,915	11,411	8,415	5,752	7,074	10.2	-3.7
6	태국	3,374	7,333	2,930	7,879	1,460	3,656	1.7	-2.1
7	싱가포르	4,909	8,117	3,521	7,095	1,396	8,975	-25.3	-22.3
8	말레이시아	2,444	6,378	2,176	5,922	1,052	3,114	3.4	7.6
9	베트남	1,722	4,459	1,690	4,709	845	2,632	17.6	13.9
10	대만	2,965	6,799	2,629	4,686	1,462	1,894	25.9	-27.2

자료: Global Trade Atlas(수입금액 기준 순위)

- (수출) 세계 경기 회복과 전자기기 및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전자기기,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

- (수입) '24년 글로벌 유가 하락과 내수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수입량 감소

- '24년 상반기 기준 수입은 614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

* 5대 수입대상국별 점유율: 중국(25.4%), 인도네시아(8.0%), 일본(7.9%), 대한민국(7.4%), 미국(6.6%)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주요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광섬유케이블, 자동차료처리기계, 팜유, 농산물 세정기, 변압기 및 반도체 관련 제품

- 전자 및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 전자회사*의 반제품 및 완제품 제조·수출

*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산요(Sanyo), 인텔(Intel) 등

- **(수입) 주요 품목은 석유류(휘발유, 경유),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토탄(석탄의 일종), 전자부품 등**
 - 필리핀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전자, 반도체 제조를 위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음
 - 원유제품과 광물연료 수입과 기계, 철강 등 자본재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한국산 수입) 주요 품목은 전자부품, 화석 연료,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등**
 - 15대 주력 품목*의 수입 비중이 전체 품목 중 70%를 상회하며 지속적인 수입량 기록
 - *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토인기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동제품, 자동차, 염료 및 안료, 컴퓨터, 수동부품, 기구부품, 합성수지, 전력용 기기,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산업용 전기기기

□ 수입 규제 및 진입 장벽

- **(수입 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Negative System)**
 - 공식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지만, 농업, 축산업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 등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 시행
 - * 사례: 고밀도 폴리에틸렌 2%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로 '19년에 10페소/40kg, '20년에 9페소/40kg, '21년에는 8페소/40kg
 -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 면허 발급
 - *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 제품 등
- **(표준 및 인증 요건) 필리핀 정부는 제품군별로 담당 부처 및 하위 기관을 통해 다양한 표준 및 인증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와 문서 제출이 필요함**
- **(세관 검사 및 통관 지연) 불투명성과 비일관성, 전자 시스템 미비 등으로 서류 심사 및 물리적 검사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 빈번히 발생**
- **(라벨링 및 포장 규정) 필리핀어 또는 영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제품군별로 제품 성분, 유통기한, 제조국 등의 표기 규정 및 포장 방법을 따라야 함**
- **(불투명한 행정관행) 대통령의 특별 지시 등 관련 규정에도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 처리는 수출기업들의 주 애로사항**
 - 식품/화장품 등 현지 식약청(FDA)에 제품등록이 필수인 경우 통상 안내되는 기간보다 장시간 소요
 - 통관 기간이 규정보다 오래 걸리거나 관세 환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
- **(외국인 투자 제한) 공공서비스, 광업, 교육 서비스 등의 산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하는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

다. 투자

- **(FDI)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4년 상반기 기준 약 44억 달러를 기록**

- '21년 약 119.8억 달러, '22년 약 94.9억 달러, '23년 약 91.1억 달러를 기록하며 '22년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임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천만 달러) : ('21) 1,198 → ('22) 949 → ('23) 911 → ('24.6) 443

- * 자료: WB(세계은행), 필리핀 중앙은행(BSP)

- **필리핀의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확대 추진 중**

- '24년 6월, FDI 순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증가한 44억 3,500만 달러를 기록

- * '23년 6월 FDI 순유입 총 41억 1,100만 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의 원인으로 경제 성장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을 언급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소매자유화법(RTLA), 공공서비스법(PSA), 외국인 투자법(FIA)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정책을 확대하고 내수 경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 *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 주요 투자 분야 및 경쟁 동향

- **(투자 분야) '24년 상반기 기준 산업별 승인된 외국인 투자 건은 제조업(56.9%), 금융 및 보험업(17.9%), 부동산업(6.8%), 정보통신업(2.8%), 도소매업(0.8%) 순임**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 녹색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금융 개혁을 추진하며 제조업, 정보통신, 재생에너지, 금융 서비스 분야 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

- *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 **(경쟁 동향) '24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 주요 투자국은 영국(7억 6,419만 달러), 일본(3억 4,324만 달러), 미국(4,959만 달러), 싱가포르(4,163만 달러) 순임**

- '23년 주요국별 투자액은 일본(8억 4,936만 달러), 싱가포르(1억 8,265만 달러), 독일(1억 4,989만 달러), 미국(1억 1,131만 달러) 순임

- *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 필리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인프라, 제조업 부문 개발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소폭 증가

- * CREATE 법안 시행을 비롯한 소매자유화법(RTLA), 공공서비스법(PSA), 외국인 투자법(FIA) 등을 지속 개정

□ 한국 투자 동향

- '24년 상반기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액은 5,6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 세계 투자 금액은 '21년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24년부터 점진적 증가

〈한국의 對필리핀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업종	'22년		'23년		'24년 상반기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합계	88	100	101	100	56	100
1	제조업	47	52.7	60	59.1	18	32.8
2	부동산업	15	17.1	6	12.7	17	30.8
3	운수 및 창고업	0	0.2	1	0.6	13	23.6
4	도매 및 소매업	11	12.1	5	5.3	2	3.9
5	교육 서비스업	2	1.9	3	3.2	2	2.8
6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1	0.8	2	2.7
7	정보통신업	2	2.3	6	6.4	1	1.2
8	건설업	1	1.4	7	6.5	0	0.7
9	광업	0	0.4	0	0.3	0	0.7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2.8	1	1.3	0	0.6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0.5	0	0	0	0.4
12	숙박 및 음식점업	0	0.9	1	1	0	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한-필 FTA 체결 시 무역 장벽 완화, 필리핀 디지털 산업 및 인프라·프로젝트 시장 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필리핀 투자 확대 기대

□ 필리핀 투자 진입 장벽

•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 FDI 유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아세안 경쟁국에 비해 FDI 유입량이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에 기인함
-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7042)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oreign Investment Act Negative List, FINL)도 처음 발효하여 주요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을 규제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0%, 25%, 30%, 40%, 100%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는 Negative List A와 B로 구분하였으며, Negative List A는 헌법과 특정 기관의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정이 자유로우나, Negative List B는 국가 안보 및 국민 건강, 광산 개발 등에 관련된 산업군으로 최근 개정일로부터 최소 2년간 개정 불가함

• 2022년 제12차 외국인 지분 제한 리스트 발표

- 2022년 6월에 발표한 제12차 외국인 지분 제한 리스트(12th Negative List)가 현재 가장 최근 발표되어 적용되는 리스트로, 공공사업(Operation of Public Utilities)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산업에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됨
 - * 단 외국인 자본 100% 투자 시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충족 조건이 있음
- 그러나 주요 업종은 여전히 외국인 지분 제한 리스트(Negative List)에 포함하여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PSA) 개정에 따라 일부 공공사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 2022년 3월 개정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PSA) 개정에 따라 통신업, 철도 및 지하철 운영, 고속도로 및 톨게이트 운영, 항공사 및 공항 운영, 국내 물류 배송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 100%를 허용함
- 2022년 6월에 발표한 제12차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INL)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혁신적 창업법에 따라 주최기관이 승인한 스타트업 기업의 비필리핀 국적자에 대해 최소 자본금 10만 달러로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하는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개선 노력 중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에 따른 외국인 지분 제한 유형별 산업 구분〉

외국인 지분 40% 허용 공공 서비스 산업	외국인 지분 100% 허용 공공 서비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 및 송전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ity) - 석유 파이프라인 공급 - 상수 공급 (Water distribution) - 하수처리 시스템 (Wastewater systems) - 항구 (Seaports) - 대중교통 (공용버스, 공용 UV express, 공용 지프니, 공용 택시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Telecommunications) - 철도 및 지하철 운영 (Railways and subways) - 고속도로 및 톨게이트 도로 운영 (Expressways and tollways) - 항공사 및 공항 운영 (Airlines and airports) - 물류 국내 배송 (Domestic shipping)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19년 국내 기업의 최저자본금 요건 폐지, 1인 기업 제도 신설, 외국인 소매업 창업에 따른 최소 자본금 인하, 창업 간소화, 건설 인허가 처리 개선, 소액 투자자 보호 강화 시행, 투자 인센티브 강화, 법인 세율 인하 등 투자 환경 개선 추진 중

* 소매자유화법(RTLA), 공공서비스법(PSA), 외국인 투자법(FIA) 등을 지속 개정

□ **성공/실패 사례**

※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필리핀은 인건비 상승률이 타 ASEAN 국가보다 안정적이며,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고 영어권 국가라는 장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ASEAN 진출기지로 알려져 있음. 우리 진출기업들의 산업별, 투자금액별 비중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진출 비중이 높은 편임
-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는 B사는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ASEAN 시장을 공략하고자 필리핀 경제자유구역(PEZA)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였고, KOTRA 해외시장 조사, 열린 무역관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해 마닐라 무역관의 지원을 받았으며 필리핀 내 제조 공장 설립을 결정함
- B사는 마닐라 무역관으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절차, 부가세 환급 정책, 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서 검토 등 현지 정책 및 관행, 권장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 '19년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19년 말부터 현재 공장 운영 중

※ **투자 진출 실패 사례**

- C사는 그랩, 우버와 같은 공유 자동차 플랫폼 업체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C사는 필리핀 도로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지만, 현지의 자동차 수요는 많은 점에 착안하여 공유 자동차 플랫폼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 몇 개월간 필리핀 교통 시장 현황 조사를 시행함
- 그러나 필리핀은 대중교통 사업(택시 포함)에 대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공공성을 위해 외국인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 자동차 플랫폼 사업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지분 제한 문제로 경영권 확보가 불가한 문제 발생. 더욱이 최근 다른 외국 기업들 역시 공유 자동차 플랫폼 관련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필리핀 도로교통부(DOTr), 필리핀 육상교통 가맹규제위원회(LTFRB)에서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존 공유 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진출이 어려움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투자 진출

□ 한국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24년 상반기 기준, 對필리핀 투자금액은 5,627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 직접투자(320억 3천만 달러)의 0.17% 차지
 -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1,845만 달러), 부동산업(1,733만 달러), 운수 및 창고업(1,327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217만 달러), 교육 서비스업(153만 달러)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3년 기준, 對필리핀 투자금액은 1억 173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 직접투자(651억 6천만 달러)의 0.15% 차지
 -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5,976만 달러), 부동산업(1,280만 달러), 건설업(652만 달러), 정보통신업(640만 달러)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對필리핀 해외 직접투자 통계〉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순투자금액
2020	33	107	171	139	47
2021	17	86	113	107	45
2022	42	88	147	145	45
2023	47	102	159	120	21
2024년 상반기	23	56	79	79	46
합계	162	439	669	590	2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24.11.5)

□ 시사점

- 현지 법령/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선행 필요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Philippine Foreign Investment Act, Negative List)를 통해 업종에 따른 외국인 투자 분야를 제한해 놓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진출 방식을 선택해야 함

-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투자 진출 권고**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의 장애물 해결 방식으로 더미(dummy)*를 활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지만, 경영권 분쟁 여지 발생 위험성 존재

- * 현지인을 서류상의 소유권자로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업종에서 종종 활용되고 있음

-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상황과 다른 투자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과 절차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함

- **조세 인센티브 조정 등 관련 법령/법규 개정 대비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 최근 對필리핀 순 투자 금액의 대폭 감소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촉진위원회(IIPCC: Inter-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함

다. 협력 유망 분야

□ 필리핀 전자상거래 분야

-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 '21년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간 약 7,3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년 팬데믹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팬데믹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5년까지 17% 성장하여 약 240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온라인을 통해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는 의류(65.07%), 뷰티·미용제품(47.26%), 식료품(35.45%), 핸드폰·노트북 등 전자기기(34.76%), 가구·가전제품(25.17%) 순임

- * 자료: Statista('23년 1월 기준)

- **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징**

-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Shopee, Lazada, Zalora, eBay 순임

- Shopee는 월간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며,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Lazada임

- 최근 TikTok, Facebook, Instagram 등 SNS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23년 1분기 필리핀 TikTok 사용자는 약 2,000만 명을 기록했으며, TikTok Shop 매출액은 '22년 40억 달러에서 '23년 1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 자료: Statista, Locad, 현지 언론 등

- **필리핀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

- 필리핀 내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대부분 온라인 구매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 입점 시 상품 이미지 업로드, 결제 방법* 등의 모바일 앱 최적화가 중요함

- * 필리핀 전자결제 시스템인 Gcash, PayMaya 등 활용 필요

- Facebook, Instagram 등 SNS 브랜드 계정을 통한 직접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 라이브 스트리밍 및 구독자 이벤트 등 다양한 SNS 마케팅 전략 필요

- **필리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협력**

- **필리핀 원자력 발전 협력**

- '24년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1986년 이후 중단된 바탄 원자력 발전소 재건을 위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바탄 원자력 발전소 재건은 필리핀의 전력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필리핀 에너지부(DOE), 현지 언론 등

- **한국 기업의 필리핀 에너지 시장 진출**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필리핀 최대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와 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가스터빈 등 발전 인프라 협력 강화

-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필리핀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 다각화에 기여

- **필리핀 재생에너지 동향**

- 필리핀은 2020~2040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NREP)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접근성 개선이 주요 목표

- **필리핀 에너지 시장 전망**

- 필리핀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안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이 필수적

-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추진 전망

□ 필리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 필리핀 전기차 배터리 산업

- '24년 필리핀 전기차(EV) 산업은 배터리 공급망 확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
- 필리핀 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산업 개발 로드맵(CREVI), 전기차 인센티브 전략(EVIS)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StB Giga Factory Inc.의 준공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연간 2GWh 생산할 계획이며, 약 1만 8천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 StB Giga Factory Inc.는 필리핀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로, 호주 StB Capital Partners와 Oli Power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배터리 공장

*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현지 언론 등

• 필리핀 전기차 시장 동향

- 필리핀 전기차 시장은 2024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지프니 등 대중교통 수단 중심으로 보급 확대
- 필리핀 정부는 전기차 산업 개발법(EVIDA)을 통해 전기차 제조, 수입, 충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
- 전기차 도입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유지

•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 필리핀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장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사 및 전기차 부품사들의 협력 기회 확대 예상
- 한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 증가('24년 7월 기준 1,562% 증가)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됨
-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의 현지 조달 확대를 통해 한국 부품 제조사의 필리핀 전기차 산업 진출 가능성 증가

□ 필리핀 건설 인프라

• 필리핀 철도 및 인프라 사업 동향

- 필리핀은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상과 항공 교통은 발달했으나 육상 교통은 취약한 편. 필리핀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
- 마닐라와 클라크를 연결하는 남북철도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의 현대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가 참여
- 남북철도 완공 시 마닐라-클라크 구간의 이동 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예상, 36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만 명의 일일 이용객 발생 전망

* 자료: 필리핀 교통부(DOTr), 현지 언론 등

- **필리핀 인프라 건설 시장 특성**

- 필리핀 내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철도, 교량 등)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필리핀의 광역철도는 지형 특성상 교각 방식으로 건설되며, 고비용 지하철도 건설보다 경제성이 높은 철도 건설을 선호
- 국내외 기업들이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빠른 교통 연결 및 물류 흐름 개선 목표

-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 필리핀 정부, 남북철도 및 메트로 마닐라 순환도로 등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중, 한국 건설사의 연계 수주 기회 확대 전망
- '24년 이후 메트로 마닐라의 라구나 레이크쇼어 로드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 예정
- 한-필 정상회담 계기로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4건의 MOU 체결,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확대 예상

□ **필리핀 핵심 광물자원 및 공급망 협력**

- **필리핀의 광물 자원 및 공급망 협력 동향**

-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의 광물자원 부국으로, 코발트를 비롯한 풍부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
- 최근 한-필 정상회담을 통해 필리핀과 한국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양국은 안정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필리핀과의 협력은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한 니켈과 코발트 같은 필수 원자재의 수급 안정성 강화 기대

- **핵심 산업 및 공급망 특성**

- 필리핀은 다도해 국가로서 해상 및 항공 물류 인프라는 발달했으나, 육상 물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
- 주요 자원 및 제품의 물류 흐름은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반도체, 농산물이 있으며, 니켈과 코발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 MOU 체결로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의 니켈 및 코발트와 같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리핀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예상

- ※ 정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중이나 여전히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존재
- ※ 경제: 높은 성장률과 중산층 증가로 소비 시장 성장 중이나 수입 의존도 높아 국제 유가에 민감
- ※ 사회문화: 젊은 소비자층 확대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전자상거래와 소셜 커머스 시장 급성장
- ※ 기술: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 혁신 확대 전망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중앙정부의 지방행정력 한계로 치안 문제와 지역별 정치적 리스크 • (규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추진, 하지만 여전히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0~40%) 존재 • (투자 확대) 의료와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중 • (부패)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 척결 노력에도 공공 부문의 획기적 개선 필요
Economic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6%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 특히 젊은 인구가 주요 동력 • (내수 중심) 총지출의 75%가 가계 소비에 집중 • (외화 유입) GDP 11%에 달하는 필리핀 해외 노동자의 외화 송금액 •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 의존) 자국 내 자원 부족으로 높은 수입 의존도
Socia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트렌드 변화) 중산층과 젊은 소비자층 확산으로, e-커머스,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확산 중 • (모바일 확산)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온라인 쇼핑, SNS 마케팅 활성화) • (소득 격차)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커 차별화된 접근 필요 • (헬스케어) 중산층 확대에 따른 건강 관련 제품 관심 증가
Technologica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 확산)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금융 분야가 빠르게 성장 • (IT-BPO) 유창한 영어 구사력과 저비용 인건비로 IT-BPO 산업 성장 • (정부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수요 증가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젊고 성장하는 인구) 평균 연령 24세, 인구 1억 1천 명의 거대 내수시장
- (강력한 서비스 산업) 영어에 능통한 저렴한 노동력 바탕 글로벌 고객 서비스 및 IT 아웃소싱 허브
-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필리핀 정부 BBM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약 점(Weakness)

- (낮은 제조업 기반) 타 동남아시아 대비 낮은 제조업 기반과 완제품 및 부품 대부분 수입 의존
- (복잡한 규제 및 행정 절차) 외국인 소유 제한 규제 등 여러 규제 및 불투명한 행정 절차 존재
- (부족한 인프라) 도로 및 항만의 효율성이 낮아 물류비용이 높음

기 회(Opportunity)

- (전자상거래 성장) 필리핀의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젊은 인구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로 디지털 경제 빠르게 성장
-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공공서비스법(PSA) 개정, CREATE 법 개정 예정 등 필리핀 정부의 직접투자 인센티브 확대
-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부 지원 확대

위 험(Threat)

-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에 민감하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와 원자재 비용이 크게 영향
- (지정학적 리스크)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중국과 갈등 심화
- (자연재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구와 디지털 경제 성장 활용 • 최신 기술 제품과 트렌디한 소비재 수요 겨냥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디지털 마케팅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원부자재 조달을 통한 환 위험 축소 • 디지털 경제 활용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전자상거래 활용 및 현지 원자재 조달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 인센티브를 활용한 생산시설 투자 • 복잡한 규제 해결을 위한 현지 파트너십 강화 	생산시설 투자 확대 및 현지 파트너십 강화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한 리스크 분산 • 자연재해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 	현지 협력 강화 및 탄력적 공급망 구축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전자상거래 및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디지털 마케팅 강화 • 소셜 미디어 활용 확대 및 결제 시스템 파트너십 추진
건설·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규제 극복 및 리스크 분산 • 탄력적 공급망 구축 및 현지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모델 제시
소비재 및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구와 트렌디한 소비재 수요 겨냥 • K-뷰티에 대한 높은 선호도 활용 • 전자상거래 활용 및 현지 원자재 조달 확대
헬스케어 및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헬스케어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 활용 • 최신 기술 제품의 중저가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시장 타깃 진출



풍부한 잠재력의 거대 소비 시장
디지털과 현지화로 공략

3-1. (전자상거래 및 IT)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현지 핀테크와 파트너십 추진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성장 잠재력) 최근 필리핀 전자상거래 및 IT산업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 중
- ※ (한류 활용성 증가)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물리적 한계 극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류 마케팅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 (강력한 성장세)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성장세 지속 전망, 젊은 평균 연령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주된 원인, 202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이 예상되며, 2028년 약 39.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모바일 중심 상거래) 필리핀 소비자의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

* 자료: Globaldata

•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의 확산

- (소셜 커머스의 부상) TikTok Shop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셜 커머스가 급성장. 필리핀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며,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결제 수단의 다변화) Gcash, Maya, PayPal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 확산 중, 이러한 대체 수단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3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더 확산 중

* 자료: Globaldata

□ 진출전략

•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현지화 전략

- 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등)과 협력하여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군을 구축하고,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 필리핀의 모바일 친화적 소비자층을 공략

- TikTok Shop 등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 마케팅 강화 필요

• 핀테크 및 결제 시스템 파트너십

- Gcash, Maya와 같은 현지 결제 시스템과 협력하여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 제공 필요

- 구독 기반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결제 옵션을 도입해, 고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

3-2. (건설·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현지 협력을 통한 규제 극복 및 지속 가능 모델 제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정부 주도) 필리핀 정부는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진행 중
- ※ (재생에너지 분야 기회 확대) 필리핀 정부는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5%까지 확대를 목표로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 (Build Better More 정책) 필리핀 정부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까지도 이 계획의 후속 프로젝트인 'Build Better More'를 통해 도로, 교량, 항만,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어질 예정

•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성장 가속화

-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을 2030년까지 필리핀 총발전량의 36.96%, 2040년까지 55.8% 이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NREP) 추진 중
- (성장 가속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 진출전략

• 현지 기업 및 정부와 협력

- (현지 제약 극복) 현지 제약* 극복을 위해 현지 업체와의 합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장 진출이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며, 사업 능력 및 정부와의 네트워킹이 좋은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관건
- * 외국 기업 지분 제한, 토지 소유 제한 등의 건설 면허 취득, 인프라 부지 확보 등
- (공공-민간 협력(PPP) 프로젝트 활용)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 장려 중, 이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추진

• 정부 정책 및 현지 맞춤형 지속 가능성 모델 제시

- (로드맵 제시)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NREP)의 연도별 각 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 달성을 위한 모델을 제시
- (현지 적합 모델 제시) 현지 사정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시 필요

* 7,000개 이상의 섬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 태풍, 지진 등을 고려한 자금자축형 전력 시스템과 내진, 내풍 설계 등

3-3. (소비재 및 화장품) 현지화 제품군 구축 및 온·오프라인 채널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온라인 쇼핑)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화장품 및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
- ※ (한류 활용) K-뷰티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은 필리핀 시장에서 큰 인기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GDP 성장과 소비 지출

- (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는 소비재 및 화장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GDP는 전년 대비 5.6%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여 소비 여력이 확대됨
- 필리핀의 2024년 상반기 가계 지출은 9조 2,921만 페소(약 1,659.31억 달러)에 달했으며,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제품 소매 매출은 약 2,636억 페소로 전년 대비 11.4% 증가

• 피부 미백 제품

- (미백 제품) 필리핀에서 흰 피부는 미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피부 미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알부틴, 트라넥사믹산,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효능이 입증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음
- 저렴한 가격에 미백 성분이 함유된 바(bar) 형태의 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SPF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제품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이 피부를 보호하고 더욱 밝은 톤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냄

□ 진출전략

• 현지화 제품군 구축 및 가격 경쟁력 강화

- 필리핀은 열대 기후로 인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특징이며,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가벼운 제형의 스킨케어 제품, 자외선 차단제, 땀과 유분 조절이 용이한 메이크업 제품 등을 현지화하여 출시
- 필리핀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으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하게 여김.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중저가 제품군을 강화하고, 제품 패키징 및 용량을 조정하여 가격대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필리핀 소비자들은 할인, 프로모션, 1+1 이벤트와 같은 프로모션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 유인을 높여야 함.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

-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강화

-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등)을 적극 활용하여 K-뷰티 제품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Watsons, Mercury Drug 등 현지 드럭스토어 및 대형 유통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배치 추진
- 오프라인 체험형 매장이거나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여 O2O 전략을 강화

3-4. (헬스케어 및 의료) 비만 계층 공략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1인당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며 도서산간 지역 특성상 자가 치료 시장 잠재력 풍부
- ※ 필리핀 인구 증가, 중산층 성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시장 지속 성장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소비자 건강식품 시장의 확대

- COVID-19 여파로 필리핀 국민들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감기약 및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 소비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 영양제,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생활 관련 제품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
- 현재 스포츠 영양 브랜드와 피트니스 업계 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건강 및 웰빙 관련 제품 소비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커머스를 통한 자가 치료

- 높은 진료비와 지역에 따라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로 접근 방식의 편리함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자가 치료가 인기. 필리핀은 Watson, Mercury Drug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나,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상세한 검색이 가능해져 이커머스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인기
- 또한, 게임화 및 라이브 판매와 같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이는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 진출전략

• 필리핀 비만 계층 공략

- 필리핀의 인구 약 2,700만 명(전체 인구의 23.36%)은 비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한류 열풍과 연계된 먹방 트렌드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비만은 필리핀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병 및 뇌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
- 따라서 식욕 억제제 및 다이어트 보조식품,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혈당 조절 영양제와 같은 제품의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기들의 품목도 유망




- **운동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용품**

- 최근 필리핀에 러닝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2024년에 Milo 마라톤이 개최되는 등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필리핀의 러닝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작용
- 따라서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운동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운동화 및 스포츠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HS Code	8517	수입관세율(%)	0
모바일 액세서리 및 전자기기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939	對韓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2
	선정사유	- 필리핀의 모바일 중심 사회와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관련 액세서리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음 - 온라인 쇼핑물 및 소셜 미디어에서 모바일 액세서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		
	경쟁동향	- 중국산 저가 제품이 다수 유통되며 가격 경쟁 치열 - 품질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고급 제품 수요 공략 가능		
	진출방안	-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현지 마케팅 전략 필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필수		
품목명 2	HS Code	8523.49	수입관세율(%)	0
보안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248	對韓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1
	선정사유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시장동향	- 필리핀 내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데이터 보안 수요 증가 - 기업의 클라우드 및 디지털화 확대로 보안 솔루션 도입 필요성 대두		
	경쟁동향	-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업이 필리핀에서 주요 시장을 점유 - 현지 중소기업은 맞춤형 및 중소기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차별화 가능		
	진출방안	- 현지 기업과의 협업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로 접근 권장		
품목명 3	HS Code	8541.29	수입관세율(%)	0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 장치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177	對韓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13
	선정사유	-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태양광 발전 시장 성장		
	시장동향	-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증가, 특히 태양광 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 -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태양광 설비 수요 지속 증가		
	경쟁동향	-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과 장비가 필리핀 시장을 주도 -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내구성에서 차별화 가능성 높음		
	진출방안	-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필요		

품목명 4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및 장비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84	對韓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1
	선정사유	- 필리핀의 의료 시스템 개선 필요성 증대, 고품질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병원 및 클리닉 수요 증가로 의료 장비 시장이 성장 중 - 필리핀 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 의료 장비 도입 필요		
	경쟁동향	- 미국과 유럽 브랜드가 품질 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경쟁력 보유		
	진출방안	- 심전도 기계, 초음파 장비, 휴대용 엑스레이, CT 스캐너 등 전문 의료 장비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인증 절차 및 현지 규정 준수가 중요, 현지 병원과의 파트너십 형성 필요		
품목명 5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스킨케어용 화장품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76	對韓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14
	선정사유	-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꾸준한 수요		
	시장동향	- 필리핀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 지속 증가 - 특히 스킨케어 및 마스크팩 제품군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경쟁동향	- 일본, 미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경쟁하며 안정적인 시장 점유 - 그러나 한국 화장품의 트렌디한 이미지와 신제품이 필리핀에서 강력한 경쟁력 보유		
	진출방안	- 온라인 플랫폼(Lazada, Shopee 등) 활용 - 인플루언서,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메이크업 튜토리얼 제작 등 마케팅 방법 다각화		
품목명 6	HS Code	2106.90	수입관세율(%)	0
건강기능식품 	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544	對韓수입액 (‘24 상반기/US\$ 백만)	7
	선정사유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헬스케어 시장 성장		
	시장동향	- 면역력 증진 및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 보조제 및 비타민 제품의 수요 급증		
	경쟁동향	- 일본과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을 선도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혁신성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진출방안	- 현지 식약청(FDA) 규제 준수 필수, 현지 마케팅 전략 및 유통망 확보 중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 - 정부의 'Build, Build, More' 정책으로 인프라 수요 지속
	시장동향 - 도로, 교통, 공항/항만, 수자원 개발, 철도 등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 정부가 건설 산업에 대규모 투자
	경쟁동향 - 중국, 일본 기업과 경쟁, 한국 제품은 품질 및 효율성에서 경쟁력 있음
	진출방안 -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업종으로 현지 기업/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진출이 바람직 - EDCF 지원 사업은 물론 외국 정부 ODA 사업 참여를 통한 인지도 및 노하우 어필이 중요
품목명 2	
보건/의료 	선정사유 - 팬데믹 사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격의료 수요 확대
	시장동향 - 의료시설의 경우 일부 대형 병원 외 열악한 편 - 원격 진료 및 출장 검진 서비스 수요 확대
	경쟁동향 -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 - 비용 효율성 면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의료 규제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필수 - 현지 병원 및 의료 기관과 협력 통해 진출
품목명 3	
조선해양 	선정사유 - 해상 인프라 확장에 따른 선박 수요 증가 기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군함 건조 및 수리 수요 확대
	시장동향 - 해양산업과 해상 운송 인프라 확장 중 -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해군 관련 장비 발주 증가 예상
	경쟁동향 - 한국, 중국, 일본이 선박 수주량 상위 3대 국가이며 이 외 현지 기업 Herma, Colorado Shipyard 등이 경쟁
	진출방안 - 고부가가치 기술 수요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현지 정·관계 네트워크 형성 및 규제 극복을 위한 현지 기업 파트너십 필수
품목명 4	
식품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 한류 확산으로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 지속
	시장동향 - 필리핀에서 한국식 프랜차이즈 확산 중 -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
	경쟁동향 - 미국과 일본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에 유리하게 작용
	진출방안 - 한류 인기를 지속 활용하되 외식업 경험이 많은 적합한 현지 협력업체 발굴 필수

품목명 5	
<p>재생에너지</p>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 태양광, 풍력, ESS 등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의 필요성 대두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 중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계획 추진 중, 생산 기지 이전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분산 투자를 준비 중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미국, 유럽 기업과 경쟁, 한국 제품은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적극 활용 필요 -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 필수

□ K-Goods in Philippines(한류 소비재) 진출 사업

- 목 적 : 한류 상품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
- 시기/장소 : 2025년 2분기 / 마닐라
- 참 가 : 유망 소비재(식품, 패션, 뷰티 등) 기업
- 내 용
 - 유망 소비재 분야 수출초보기업 모집
 - K-Fashion & Beauty 홍보관 운영, B2B 상담, B2C 판촉전 개최 등

□ 수출초보기업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 목 적 :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필리핀 온라인 유통망 시장 진출 확대
- 시 기 : 2025년 2~4분기
- 참 가 : 수출초보기업 30개사 내외
- 내 용 : 현지 유망 온라인 유통망 입점, SNS 판촉 마케팅 지원

□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 (Korea-ASEAN Project Plaza 2025)

- 시기/장소 : 2025년 3분기 / 마닐라
- 참 가
 - (한국) 프로젝트 수주 관심 기업, 설비/제품 납품 기업 등 30개사
 - (해외) MDB, 필리핀 및 아세안 발주처, 건설/인프라 관련 기업 등 50개사
- 내 용
 -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 포럼
 - MDB/다국적 인프라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

□ 2025 필리핀 냉동공조 전시회(HVAC/R Philippines) 한국관 운영

- 목 적 : 필리핀 최대 규모 건설 관련 B2B 박람회 통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장소 : 2023년 11월(잠정) *Philconstruct 전시회와 동시 개최
- 참 가 : 국내 기업 10개사

□ 무역사절단

- 목 적 : 필리핀 내 한국산 유망제품 시장 진출 확대
- 시기/장소 : 2025년 상시 / 마닐라
- 참 가 : (한국) 무역사절단·전시회 참가업체 / (필리핀) 현지 바이어
- 내 용 : K-Fashion & Beauty, 소비재, 의료기기 업체 등과 on·offline 병행 상담

□ 필리핀 한국 투자 진출 기업 지원센터 운영

- 목 적 : 해외 투자 진출 관심 기업의 원활한 진출 지원
- 시 기 : 2025년 상시
- 대 상 : 해외 투자 진출 관심 기업 또는 이미 투자하여 진출한 기업
- 내 용 : 현지 법인 설립, 투자 환경 관련 뉴스레터, 노무, 세무 등 투자 이슈 대응 및 경영정보 관련 세미나 개최 등

□ 한-필 FTA 설명회 개최

- 목 적 : 한-필리핀 FTA* 홍보 및 주요 협약 내용 안내 통한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
* 2025년 초 최종 발효 시
- 시기/장소 : 2025년 상반기 / 마닐라
- 참 석 : 양국 기업인 100명 내외
- 내 용 : 한-필 FTA 주요 내용 설명, 물류 통관 실무 안내 등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SEAN Summit	'25년 상/하반기	제46, 47차 아세안 서밋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예정
APEC 정상회의	'25년 하반기	한국 개최 예정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25년 2월 5~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
'25년 필리핀 중간선거	'25년 5월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 법 개정 (CREATE MORE ACT)	'25년 1분기	세금 감면(25%→20%),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
'25년 국가 예산 발표	'24년 4분기	109억 6,870만 달러 규모 예산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분야	일시(잠정)	비고
Future Healthcare Phil Summit	헬스케어	'25년 1월	https://escom-events.com/futurehealthcare-asia/hospital2025phil
Philippine Construction Ceramics And Power Expo	건설	'25년 1월	https://www.constructceramicspowerexpo.com/
Cybersec Phil Conference	IT/Defense	'25년 2월	https://cybersecasia.org/csph2025
포장 패키징 엑스포 PROPAK PHILIPPINES		'25년 2월	https://www.propakphilippines.com/
Philippines Pharma and Healthcare 2024	Medical and Healthcare	'25년 2월	https://www.philippinespharmahealthcare.com/
Philippine International Furniture Show	Home Improvement	'25년 3월	https://pifs.ph/
Philippine Power Expo	Energy	'25년 3월	https://philpowerexpo.com/
PhilEnergy Expo	Renewable Energy	'25년 3월	https://www.philenergyexpo.com/
Worldbex	Construction	'25년 3월	https://worldbex.com/
Water Philippine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25년 3월	https://www.waterphilippinesexpo.com/

주요 행사	분야	일시(잠정)	비고
Philippine Ports and Logistics	Logistics	'25년 3월	https://www.transportevents.com/product/philippine-ports-and-logistics-2024/
필리핀 건설박람회 Philconstruct Manila		'25년 4월	https://philconstructevents.com/philconstruct-luzon-2024
마닐라 자동차 전시회 (MIAS) Manila Auto Show		'25년 4월	https://manilaautoshow.com/
필리핀 프랜차이즈 엑스포 Franchise Asia Philippines		'25년 4월	https://www.franchiseasiaph.com/
Philippine Food Expo	Food	'25년 4월	https://philippinefoodexpo.ph/
필리핀 국제 미용 박람회 (Philbeauty) Philippine International Beauty Show		'25년 6월	https://www.philbeautyshow.com/
Solar and Storage	Energy	'25년 5월	https://www.terrapinn.com/exhibition/solar-storage-live-philippines/
Livestock and Aquaculture Philippines	Livestock and Aquaculture	'25년 6월	https://www.livestockphilippines.com/aquaculture-philippines/
Auto Parts and Vehicle Expo	자동차	'25년 7월	https://www.apvexpo.com/
마닐라 국제 식품전 (Mafbex) Manila International Food and Beverage Expo		'25년 6월	https://mafex.com/
Wire and Cable Show	Wire and Cable	'25년 7월	https://www.wirecableshow.com/
국제 음식 엑스포 (WOFEX) World Food Expo		'25년 8월	https://wofex.com/
Medical Philippines	Medical	'25년 8월	https://www.philmedical.com/
Beauty + Health Wellness Manila	Cosmetics and Skincare	'25년 9월	https://beautyandwellnessmanila.com/
아시아 보안 기술 전시회 (ADAS)Asian Defense, Security & Crisis Management Exhibition		'25년 9월	https://adas.ph/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윤환	과장	마닐라 무역관	+63-2-8894-4084	unan.kim@kotra.or.kr
2	형민혁	대리	마닐라 무역관	+63-2-8894-4084	hyeong@kotra.or.kr
3	노채환	현장 실습생	마닐라 무역관	+63-2-8894-4084	unan.kim@kotra.or.kr

2025 필리핀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